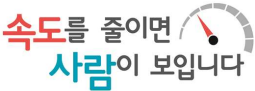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		<b>배포일시</b>	<b>2018.8.10(금) / 총1매(본문1)</b>
<b>국토부</b>	자동차정책과	<b>담당자</b>	•과장 박대순, 사무관 유연형, 주무관 황우관 •☎ (044) 201-3843, 3844
<b>교통안전공단</b>	자동차안전연구원	<b>담당자</b>	•처장 최광호, 책임연구원 남상훈 •☎ (031) 369-0251, 0284
<b>보도일시</b>		<b>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</b>	

## BMW 차량화재와 관련한 보도기사 사실관계 안내

- 정부는 제작사 보고서 검증에만 매달리고, 자체실험을 위한 BMW 리콜대상 차량을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으며,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확보한 시료도 EGR 부품 6개가 전부라는 기사내용에 대하여,
  -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제작사 자료 검증에만 의존하지 않고, 현재 확보된 부품으로 우선 시험·분석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화재차량은 최소 3대, EGR 부품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.
- 민관합동조사단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하여
  - 조사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,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.
  - 참고로, 자동차안전연구원은 30여년간 자동차제작결함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온 전문기관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동아일보, 8.10) >

- ◆ (동아닷컴) 정부, BMW 화재결함조사 차량 확보 0대...제작사보고서 검증만
  - 한국에서는 전혀 자체 검증시험을 하지 않고, BMW 주장만 확인하는 수준
  - 민관합동조사단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을 시인하는 꼴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 자동차정책과 유연형(☎ 044-201-38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